

불황에도 ‘커피’ 줄서서 마신다

“서른여덟번째 메뉴로 준비 중입니다.”
광주신세계 1층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받은 메시지가. 메뉴를 주문 후 받기까지만 20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 광주지역의 스타벅스는 5월 현재 46곳이 있으며, 한 곳의 일 매출은 4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불황과 커피 시장이 포화됐다는 우려에도 커피 전문점은 연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이디야 등 주요 커피 전문점의 매출은 모두 증가했다.

전반적인 커피 소비가 늘면서 커피값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스타벅스코리아 매출은 1조5천224억원으로 전년 대비 20.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4.9% 늘어난 1천429억원으로 집계됐다. 1997년 한국 진출 이래 최대 실적이다. 매장 수는 1천280개(3월말 기준)다.

CJ푸드빌에서 분할된 투썸플레이스도 지난해 매출 2천743억원, 영업이익 29

2억원이라는 기대 이상의 첫 성적표를 공개했다. 영업이익률은 10.6%에 달했으며, 당기순이익도 205억원을 기록했다. 실적은 CJ푸드빌에서 분리된 후 지난해 2월-12월 기준이다.

전국에 가맹점 2천500여개를 두고 있는 이디야커피도 지난해 2천여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 대비 8.9% 늘었다. 영업이익은 12.4% 감소했지만, 가맹점 지원과 커피 공장 신축 등으로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커피빈과 할리스도 매출이 각각 5.6%, 9.9% 늘어난 1천666억원, 1천549억원을 기록했다. 매일유업이 운영하는 폴바셋의 매출은 828억원으로 9.5% 성장했다.

커피 전문점을 자연스럽게 드나들면서 공부나 일을 하고 여가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커피 소비와 점별 매출이 늘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커피 전문점들이 지난해 앞다퉂 매장 확대와 개편, 고급화 전략, 신메

뉴 개발 등에 주력한 결과 실적이 좋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토종 커피 전문점들도 1위 스타벅스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공격적인 출점과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폴바셋은 스타벅스를 표방해 유동인구가 많은 오피스 상권과 백화점 인근에 점포를 집중적으로 열고 직영점만 운영하는 전략으로 매출을 끌어올렸다. 이달 기준 약 100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투썸플레이스는 음료는 물론 아침과 디저트 메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해왔다.

할리스커피는 상권별 맞춤형 매장으로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대학가에선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개인)’을 겨냥해 1인 좌석과 콘센트를 늘리고 사무실 밀집 지역에서는 여러 명이 둘러앉을 수 있도록 넓은 좌석과 회의실을 배치하는 식이다.

최근에는 투썸플레이스와 할리스, 폴바셋도 스타벅스와 비슷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료를 미리 주문하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정보통신(IT)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임후성기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인원 확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2019년 상반기 지원 인원을 늘리는 한편 5월부터 신청기간 등 일정을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졸업·종퇴 후 2년 이내이며,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만 18~34세)의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조정되는 내용은 하반기 지원 인원 중 일부를 상반기에 배정해 5~6월 지원 인원을 약 1천800명 내외로 늘리고, 신청마감일도 매월 20일로 변경해 다음달 10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상반기 지원 인원이 확대되면 3~4월 동안 우선순위 때문에 지원받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지원 인원 확대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보다 안정적인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후성기자



서핑 셔츠로 시원한 여름 나세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광주신세계 7층 코모도 매장에서 몸에 달라붙지 않는 루즈한 핏과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로 출시, 쾌적하고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서핑 라인’ 셔츠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농작업 방식 ‘쪼그리’ 특허청 우수발명품 선정

(주)에텐류, 농업편의장비 부문 2년 연속 수상
착탈식 용이...안전벨트 추가 안전성 향상

농업 편의장비 전문 브랜드 (주)에텐류(대표 이진국·사진) 생산 제품 ‘쪼그리’가 특허청이 추천하는 ‘2019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에 선정됐다.



쪼그리

‘우수발명품’은 특허청에서 중소기업 우수발명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을 활용해 생산된 중소기업 제품 중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추천해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작업용 의자 ‘쪼그리’는 무릎·팔꿈치 걱정 없이 앉고 일어나는 작업을 반복할 때 유용하다. 농어촌 농업인들이 일할 때 농부중 예방을 위해 탄생했다.

‘쪼그리’는 대부분 양쪽 가랑이에 각각 끼워지는데, 이러한 경우 한쪽 다리는 들고 안쪽까지 끌어올려 착용하면서 균형을 못 잡고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쪼그리’는 계속 변화했다. 현재 ‘쪼그리’는 허리벨트 형식으로 바로 착용하기 때문에 착탈식이 매우 손쉬운 강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벨트가 추가돼 방석의자의 정 위치로서 작업 중 엉덩이방아를 찢는 현상을 없애 사용 안전성까지 보강했다.

또한 ‘쪼그리’는 최근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에 지정돼 벤처나라에 상품등록을 앞두고 있으며, 특허청의 우수발명품에 선정돼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특허청 추천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주)에텐류는 특허청장으로부터 2018 지식재산경영인증’을 획득해 정부

로부터 지식경영의 강소기업임을 인증 받았다.

특히 ‘쪼그리’는 ‘2017-2018 대한민국 공감브랜드대상’ 기업부문 브랜드 대상에서 농업편의장비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주)에텐류 이진국 대표는 “특허청에서 농작업용 의자 ‘쪼그리’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만큼 앞으로도 기존 제품과 차별성 확보 차원에서 기술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농어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농업편의장비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류에 공헌하는 제품을 개발하자’라는 가치를 내걸고 2009년 창립한 (주)에텐류는 광주 남구 칠석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3건의 특허등록, 15건의 디자인 등록, 7건의 상표 등록, 지속적인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주)에텐류는 일본과 주요국 특허출원을 시작으로 국제특허출원 PCT(Patent Cooperation Treaty)까지 완료했으며 농업 편의장비를 위한 제품 연구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공무원 출신인 이진국 대표는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임후성기자

건설연 “건설투자 3분기 연속 5% 이상 감소”

1998년 2-4분기 이후 처음

최근 건설경기 불황이 3분기 연속 건설 투자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발표한 ‘건설·주택경기 긴급 진단 연구’ 보고서에서 국내 건설투자가 지난해 3분기 이후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5%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에 전분기대비 1.5% 감소하며 14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데 이어 작년 3분기에는 8.9%, 작년 1분기 5.9%, 올해 1분기에는 7.4%가 각각 감소했다.

건설투자가 3분기 연속 5% 이상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였던 1998년 2-4분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 큰 경제 악재가 없는 가운데 건설투자가 3분기 연속 5% 이상 감소한 것은 주택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건설경기가 빠르게 하락한 반면, 공공부문의 실적도 부진하기 때문이다.

이종일 연구위원은 “건설경기의 선행 지표인 지난해 건설 수주도 15조5천억원으로 최근 4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건설경기 침체가 국내 경제 성장을 둔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올해 1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0% 줄어 2016년 7월(-0.4%) 이후 처음 감소세로 전환됐다.

연구원은 건설업 취업자 수 지표는 건

설투자보다 2-3분기 정도 후행하기 때문에 최소 2020년까지 빠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과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한 수급 불균형의 우려도 제기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주거복지로드맵상의 6만2천가구와 최근 3차에 걸친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추진 계획에 따른 30만가구를 합해 총 36만2천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데 이로 인해 공급이 신규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이 어려운 경기도 외곽은 교통대책이 구비된 3기 신도시 발표로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요선행지표인 주택 매매거래량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세가율도 하락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침체 대비한 선제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스마트한 에너지(에너지)를 실현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 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 ② 벽백이와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 ③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④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작은거인 X-T30

후지필름 TP존 광주점 (에이치디코리아)

신제품 미러리스 카메라 파격판매!

후지필름 TP존 광주점 오시는 길

타이어뱅크, 임동오거리, 금남로, 삼동로, S-CIL

TP Zone 이란?

Touch Point Zone의 의미로 후지필름 제품 및 서비스를 체험하는 All in one 서비스 매장으로, 각 지역에서 동일한 프로모션 및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점	062-522-2000
지점	062-350-8397
서비스센터	062-365-9999

GFX 50S, GFX 50R, X-T3, X-H1, X-T100, X100F